

활기있고
快適한
漁港漁村
建設

會訓
● ● ●
創 奉 誠
意 仕 實

漁港消息

발행경 孫井植 特殊 韓國漁港協會
편집인 金在克 서울특별시중로구원남동103번지
인쇄인 金在克 TEL. 3673-2851~4
ISSN 1227-7053 568-6651~2
등록일: 1988년 2월 19일 FAX. 568-6653
www.fipa.or.kr

2001년도 어업기반시설에 1,835억원 투입

태·폭풍기 이전에 주요시설 마무리 제2종어항은 227억원으로 25% 증액

2001년도 어업기반시설에 산은 어항건설사업비 1,618억 3천5백만원을 포함, 모두 1,835억 6천9백만원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내년도 어항건설예산은 농특회계 709억 6천1백만원, 책특회계 109억 3천6백만원과 일반회계 799억 3천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1.1%인 18억 1천3백만원이 감소된 수준이다.

이 가운데 제1·3종어항 건설예산은 올해보다 4.5% 줄어든 1,362억 2천5백만원이며, 제2종어항은 25% 45억 5천만원이 늘어난 227억 5천만원이다. 이와함께 육지소규모항에 대한 예산은 올해와 같은 28억 6천만원이다.
또한 어촌민속전시관, 어촌휴양단지, 어촌종합개발예산도 올해보다 각각 33.3%, 2.2%, 9.6% 줄어든 20억

원, 22억 5천만원, 174억 8천4백만원 수준이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어항건설사업 목표를 완공우주의 집중투자자로 미완공 어항을 조기에 완성, 수산업에 둘러싼 국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태풍 등 재해방지 어항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유지보강사업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관리종합계획을 수립키로 하고 총 2억4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으며 나머지 지역도 지역별 추진상태를 파악하며 사업비 지원여부를 확정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훼손연안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계획 수

립을 통해 연안정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환경복원을 전제로 한 해역개선 및 환경친화적 친수연안 조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전국 연안에 대한 관리계획수립과 함께 훼손연안

정비사업을 병행 시행키로 하고 우선 1단계로 오는 2004년까지 전국 201개 연안을 대상으로 해역개선사업을 벌이기로 했으며 오는 2009년까지 총 590개 연안지역을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사업방침에 따라 인천 소래포구, 부산 광안리, 제주 표선리 등 전국 22개 연안을 우선 정비연안으로 선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보수·정비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2001년말까지 사업을 시행하는데 국고 68억원을 포함, 총 202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키로 했다.

2001년도 어업기반시설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00예산(A)	2001예산(B)	증(△) 감		비고
			(B)-(A)	%	
합계	188,299	183,569	△4,730	△2.5	
어항건설 소계	163,648	161,835	△1,813	△1.1	
제1·3종어항	142,588	136,225	△6,363	△4.5	
소계	142,588	136,225	△6,363	△4.5	
일반회계	83,000	77,078	△5,922	△7.1	계속12, 유지보강 시설계 5개항
농특회계	59,588	48,211	△11,377	△19.1	계속 10개
책특회계	-	10,936	10,936		계속1, 유지보강3
제2종어항(농특회계)	18,200	22,750	4,550	25.0	
육지소규모항(일반회계)	2,860	2,860	-		시군지원
어촌민속전시관(일반회계)	3,000	2,000	△1,000	△33.3	계속 2개소
어촌휴양단지(농특회계-구조개선)	2,300	2,250	△50	△2.2	
어촌종합개발(농특회계)	19,351	17,484	△1,867	△9.6	신규 16개 권역
일반회계 합계	88,860	81,938	△6,922	△7.8	
농특회계 합계	99,439	90,695	△8,744	△8.8	

항만·어항공사 실명제 도입

항만 및 어항건설공사 집행규정 개정

해양수산부는 항만·어항공사의 책임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참여기술자에 대한 실명관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주민이 참여하는 모니터링제를 신설, 건설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항만·어항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에 대한 실명관리를 통해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및 책임시공을 유도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공사집행규정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항만·어항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참여기술자에 대한 실명관리를 본격 시행키로 하고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의 장기계속공사와 계속비공사, 10억원 이상의 단년도 계약공사를 실명관리대상으로 하되 전면책임감리를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시행하

기로 했다.
또 실명기술자의 범위를 계약공사별로 실제 참여한 발주청의 공사감독자와 도급자 및 하도급업자의 공종별 책임기능공, 잠수기술인 등으로 하고 공사시행전에 참여기술자의 실명, 수행업무, 참여기간 등을 현장에 게시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함께 건설공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민의 관심이 높은 사업이나 도서지방, 오지 등 공사감리, 감독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공사중에서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1개 이상의 공사를 선정, 주민모니터링을 시행키로 했으며 민원사항의 신속한 처리와 유사민원의 사전방지를 위해 민원사항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항만·어항공사의 설계통일을 위해 설계의 기준이 되는 설계지침을 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설계도서의 전산화가 용이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업의 준공설계도서는 준공보고서 CD로 제출하도록 했다.
훼손환경 복구를 위해 전국 42개 연안지역을 집중 관리지역으로 선정, 단계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내년에 강원, 전남, 경남 등 8개 시·도를 대상으로 연안

연안지역 체계적 정비키로

해양수산부는 전국 42개 연안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관리계획을 수립, 연안정비의 효율성을 제고키로 했다.
최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연안지역의 방재기능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훼손환경 복구를 위해 전국 42개 연안지역을 집중 관리지역으로 선정, 단계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내년에 강원, 전남, 경남 등 8개 시·도를 대상으로 연안

또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새 천년의 출발점기에 꿈과 희망과 의지를 담아 새 역사를 다시 써보자고 다짐했던 올해였지만 모든 것이 뜻한 바대로 이루어 지지는 못했다. 오히려 악몽같은 제2의 IMF 사태가 오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으로 대내외적으로 술한 도전과 시련을 겪어야만 했던 한 해였다.

그러나 한국어항협회는 오로지 의욕 하나만으로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예산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큰 성과를 올린 해로 자평하고 있다.
통상적인 업무이기는 하지만 조사 연구 홍보분야,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오로지 사명감 하나로 성실하게 임해온 어항청소업무 등은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크게 세가지 정도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던 한 해였다.

첫째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추진했던 한 해였다. 한 예로 지난 7월 29일 정부로부터 국동항과 통영항의 수중침적폐기물 정화사업을 수임했다. 13억8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 사업에서 3천2백여톤의 폐기물을 수거하고 11월 23일 완료했다.

이에 힘입어 삼척 임원항과 거제 다대도포항의 수중침적폐기물 정화사업을 추가로 수임, 지난 11월 30일부터 2억5천4백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부터는 99년 이월사업과 금년도 사업으로 강원도 고성군 앞바다 침체망인양사업을, 이어 속초시 침체망 인양사업을 수임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사업을 수임, 이미 완료했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다.
둘째는 지난해에 이어 신규 연구 용역사업을 착수했던 한 해였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통상적인 조사 연구사업 이외에 올해에는 과거 어느 해보다도 규모가 크고 방대한 정부의 연구용역사업을 수임해 성공적 완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부연설명하자면 전국 어항개발 투자효과분석 및 개발방안 용역을 수임해 4억7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협회 연구위원과 연구자문위원은 물론 사계 전문가가 모여 훌륭한 성과

품을 내기 위해 불철주야 매진하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정부의 각종 연구용역에 관해서는 그 동안 협회가 쌓아온 경험과 실적이 바탕이 되어 어항에 관한한 가장 독보적이면서도 권위있는 단체로 인정받은 결과로 간주할 수 있을 것 같다.

셋째는 최대 규모의 해외어항어촌 조사단을 파견한 한 해였다. 현재 우리가 처한 여건이 세계화 국제화가 필연적인 과제임을 감안했을 때 협회 창립 초기부터 시도했던 과감한 사업계획이 이제 그 결실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단은 매년 파견하고 있지만 특히 올해는 어항관련 중앙 및 시도, 시·군 공무원, 시공·용역회사, 일선수협 할 것 없이 45명(연인원 379명)의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여 해외어항어촌을 둘러봄으로써 우리의 시야를 크게 띄우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와 유사한 취지의 해외시찰단이나 조사단의 경우에서 관광이나 하면서 놀다오는 것이라는 잘못된 관념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요즘과 같이 국제 경쟁력이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인력을 해외로 계속 내보내어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음을 재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올 한 해 이같은 일련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협회는 작은 일을 이루었다고 해서 지나친 자만심도 갖지 않고,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좌절도 하지 않으며 최선의 봉사

와 노력을 하는데 업무의 초점을 맞추어 왔다. 우리 뒤에는 협회를 항상 성원해 주고 있는 정부 관계자와 수많은 어항인과 수산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협회가 이렇게 우뚝 설 수 있게 된 원동력은 모두 이러한 배경이 있었음을 밝혀 두지 않을 수 없다.
힘든 한 해였지만 다가오는 새해 또한 이에 못지 않을 시련과 고통이 뒤따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두려울 것이 없다. 최선을 다하려는 불굴의 노력과 함께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는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의욕 하나만으로 성과를 올린 한 해

다고 해서 좌절도 하지 않으며 최선의 봉사와 노력을 하는데 업무의 초점을 맞추어 왔다. 우리 뒤에는 협회를 항상 성원해 주고 있는 정부 관계자와 수많은 어항인과 수산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협회가 이렇게 우뚝 설 수 있게 된 원동력은 모두 이러한 배경이 있었음을 밝혀 두지 않을 수 없다.
힘든 한 해였지만 다가오는 새해 또한 이에 못지 않을 시련과 고통이 뒤따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두려울 것이 없다. 최선을 다하려는 불굴의 노력과 함께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는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동

정

'21세기 해양시대의 전망과 과제' 강연



盧武鉉 해양수산부 장관

▲노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월4일 서울대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에서 강의, 6일에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 13일에는 부산수산물 도매시장 기공식에 참석, 14일에는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조찬포럼에 참석 '21세기 해양시대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 15일에는 목포 신항 기공식에 참석, 20일에는 부산 어업지도선 사무소와 부산해양경찰청을 순시하고 관계자를 격려 이어 부산 신항 기공식에 참석, 23일에는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



孫井植 한국어협협회장

▲손정식 한국어협협회장은 12월1일 성남시민회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주관, 통일정세보고회에 참석, 이어 힐튼호텔에서 열린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주관, '신해양법 질서하의 한반도 주변해역 문제'에 대한 특별강연에 참석, 7일에는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주관 '21세기 해양안보 환경변화와 대응방향' 등에 대한 학술세미나에 참석, 9일에는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총재 손재식) 주최로 경희대학교 종합강의실에서 열린 '영호남 화합을 위한 국민대토론회'에 참석, 14일에는 경기도 분당구청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에 참석, 16일에는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회에 참석, 18일에는 롯데호텔에서 열린 밝은사회서울중앙클럽 월례회의에 참석, 22일에는 국회귀빈식당에서 열린 해양환경국민운동연합 이사회에 참석.

▲박종식 수협중앙회장은 12월13일 부산감천항에서 거행된 감천항공영수산물도매시장 기공식에 참석, 14일에는 수협 회의실에서 새어업인상을 시상.

▲고제철 금광기업주식회사 회장은 12월22일 광주지방법원 가사조정위원회 간담회에 참석.

▲조남욱 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은 12월5일 무역회관에서 열린 대한중재인협회 간

담회에 참석, 6일에는 한국정치발전연구회 간담회에 참석, 13일에는 경영자총협회 회장단회의에 참석, 14일에는 한일친선협회중앙회 회의에 참석, 15일에는 한국능률협회 조찬회에 참석, 21일에는 경영자총협회 이사회에 참석.

▲최상욱 남화도건주식회사 회장은 12월4일 한국체육대학교 제3대 총장 취임식에 참석, 7일에는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제33차 이사회에 참석, 이어 성균관유립 가족법수호를 위한 총괄기대회에 참석, 11일에는 광주예술문화상 시상식에 참석, 14일에는 유네스코 광주전남협회 창립 35주년 기념식 및 국제가족친선의밤 행사에 참석, 15일에는 KBS광주방송총국 신사옥 준공식에 참석, 18일에는 대법원장으로 부터 감사장을 수상, 21일에는 전남 제2건국국민추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22일에는 제2회 전남 향토문화연구 논문시상 및 발표회에 참석.

▲황금주 동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12월15일 목포신항 기공식 및 진입도로 준공식에 참석.

▲정운삼 대지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12월10일 대구에서 열린 하동정씨 제각 준공기념식에 참석, 15일에는

수원 매송인터체인지 공사현장에 출장.

▲송재성 주식회사상호종합건설 회장은 12월11일 여수 공사현장에 출장.

인사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장 이규식(12월5일) △기획관리실장 김성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최낙정(12월7일) □개방형 직위 △해양정책국장 이용우 △국립수산물

□국장급 전보 △공보관 한준규 △감사관 양병관 △안전관리관 김성규 △국제협력관 신평식 △해운물류국장 서정호 △수산정책국장 강무현 △어업자원국장 박덕배 △국립수산물진흥원 연수부장 이광로 △국립해양조사원장 김창남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이갑숙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정이기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직무대리) 나승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서상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과장 안국전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과장 김형남 △해양수산부 최장현, 김하진, 이재균 □과장급 전보 △총무과장 박남춘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장맹수(12월14일)

□과장급 전보 △국제협력관실 국제협력담당관 조화행 △"무역진흥담당관(직대) 전영식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서병규 △"정보화담당관 김석구 △해양정책국 해양환경과장(직대) 윤학배 △"해양보전과장 원재태 △연안계획과장 정순석 △해운물류국 선원노동과장 이인수

△"물류기획과장 김성용 △수산정책국 수산정책과장 이선준 △"유통가공과장 박종국 △"어업기술인력과장 손부일 △어업자원국 어업지도과장(직대) 김동주 △국립수산물진흥원 기획관리과장 정도훈 △"연수부 교학과장 이상남 △"서해수산업연구소 기획과장 이문희 △"남해수산업연구소 기획과장 장황호 △국립해양조사원 관리과장 민병훈 △국립수산물검사소 서무과장 유병수 △"검사과장 이진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총무과장 추교필 △"항무과장 변진식 △"해양환경과장 유상정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총무과장 임광수 △"항무과장 한상배 △"해양환경과장 정봉섭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이장우 △제주지방해양수산청장 이흥식 △해양수산부 근무 김영규 방기혁 오병철 정재홍(12월21일)

취임

▲이동원 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지난 12월8일 해양오염방제조합 이사장에 취임했다.

의족

▲최영수씨(한국어협협회 사무국장)의 차녀 자은 양은 오는 2001년 1월13일(토) 오후 3시 인천 부평역앞 북광장 웨딩코리아 15층 사파이어홀에서 화촉을 밝힌다.

▲강국희씨(유한회사신원종합건설 사장)의 장남 범준군은 오는 2001년 1월14일(일) 오후 1시 강남고속터미

널 호텔센추럴시티 5층 크리 스타홀에서 화촉을 밝힌다.

의비남부

<대단히 감사합니다>

- 단체
 - ▲주식회사삼양사(사장 염민웅)
 - ▲감을건설주식회사(사장 박한상)
 -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박학순)
 - ▲용진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홍성웅)
 - ▲울산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오성웅)
 - ▲냉동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영택)
 - ▲주식회사유일종합기술공사(사장 이희운)
 - ▲선박검사기술협회(이사장 박희열)
- 개인
 - ▲배익구씨(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무궁화6호 선장)
 - ▲신순균씨(여수지방해양수산청 어항공사과장)
 - ▲홍효선씨(국립수산물검사소 총무과)

부음

- ▲유병수씨(해양수산부 어업기술인력과장)는 12월 3일 모친상을 당했다. 장지는 경기도 광주군 화천면 정지리 선영.
- ▲최병원씨(한국어협협회 연구원)는 12월 13일 부친상을 당했다. 장지는 전남 완도군 여동리 선영.
- ▲이종휘씨(전 수산청 차장)는 12월 22일 모친상을 당했다. 장지는 충남 보령시 웅촌읍 죽청리 선영.

해수교환방파제 설치기본계획 수립착수

항만 및 어항의 수질오염을 개선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해수교환방파제를 체계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항내정온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파제 등 외곽시설로 인하여 해수유통이 저감되어 항내오염이 심화되는 경우가 발생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수교환 기능을 가진 신형 해수교환 방파제를 설치하여 항내오염 개선과 쾌적한 항만환경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수교환방파제의 체계적인 설치를 위하여 항별 입지여

건과 오염현황, 해수교환방파제 설치시 예상효과 등을 종합 분석한 후 2001년 1월까지 해수교환방파제의 최적 배치위치와 단계별 설치방안을 포함하는 '해수교환방파제 설치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기본계획 수립은 해양수산부에서 지난 98년부터 추진해온 해수교환방파제 실용화 연구사업(총사업비 13억원)이 착실히 진행되어 관련 기초기술이 확보됨에 따라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항내 수질오염 해소 및 환경친화적인 항만조성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내년도 사업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지방청별 대상공사 선정을 마무리짓기로 했으며 늦어도 이달안으로 공사발주계획을 확정짓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내년의 경우 경기침체 장기화로 대규모의 실업난이 예상되고 있어 신항만을 비롯한 주요 항만공사의 집행 일정을 대폭 앞당기기로 했으며 광양항, 목포신외항 등 대형 신규공사를 중심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지방청별 공사집행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조기발주계획이 확정되면 가능한 한 금년안으로 예산배정을 완료, 내년 중순부터 본격적인 공사 집행에 나설 예정이며 월2회 사업별 추진실태 점검을 통해 공사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항만공사 조기발주계획이 시행되면 건설경기 활성화 및 지방 실업난 해소는 물론 충분한 시공기간 확보로 공사 품질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항만 방재시설 전면 정비

해양수산부는 태풍,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항만시설의 재난방지를 위해 내년에 총 1,167억원을 들여 부산항, 군산항 등 전국 30개 주요 항만의 노후 방재시설을 전면 정비하기로 했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2001년 방재집행계획에 따르면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피해가 우려되는 연안 항만의 재난예방을 위해 내년에 총 1,167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국 30개 지역항만의 시설보강을 추진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특히 이번 방재사업에서 방파제, 갑문 등 기존 노후시설의 보강과 함께 시공중인 시설물의 태풍피해 최소화를 위한 공사 안전대책도 수립·시행하기로 했으며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통해 취약시설로 판명된 항만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관리하기로 했다.

또 연안재해방지를 위해 연안시설물 설계기준 및 해일 예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진에 대비한 항만구조물의 내진 보강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노후시설 재개발사업 추진 2002년까지 항별 기본계획 마련

해양수산부는 슬럼화되고 있는 노후항만지역의 생산기능 확충을 위해 항만공간 재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최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시설노후화로 슬럼화가 확산되고 있는 노후항만지역의 시설기능을 전면 개편, 항만 생산성을 높이기로 하고 전국 항만의 노후실태 조사를 통해 항만재개발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대상항만은 지난 60~70년대에 건설된 항만으로 항만공간 협소로 인한 주변지역의 슬럼화 및 산업공해가 발생하는 지역이 주 대상이며 전체 항만의 25% 이상이 해당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노후항만재개발을 위해 내년에 20억원의 예산을 확보, 항만재개발 정책방향 및 재개발모델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오는

2002년까지 항별 재개발기본계획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항만재개발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도시기능과 조화를 이루는 항만공간 창출을 위해 관계법령의 제·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지정항만의 경우 사업효율성을 감안하여 해양수산부가 직접 주도해서 개발을 추진하되 용역결과에 따라 민자유치의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민자대상사업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이 시행되면 현재 3억5천만톤인 항만하역능력이 5% 이상 증가(신항만개발시 22선석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항만주변공간의 이용도 개선으로 항만의 생산기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항만공사 내년 조기발주

해양수산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계획된 주요 항만공사의 70%를 내년 1·4분기중 모두 발주하기로 했다.

최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신항만 등 주요 항만공사의 조기발주를 통해 침체국면에 있는 건설경기를 적극 부양키로 하고 지방해양수산청별

예산배정을 조기에 완료, 내년도 항만시설물량의 70%를 1·4분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의 내년도 신항만 및 일반항 건설공사는 총 89건 7,118억원 규모로 조기발주계획이 시행되면 총 63건 4,983억원 규모의 공사가 1·4분기중 집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바다환경보호 캠페인 **바다사랑 나라사랑** **남 몰래 버린 오물**
우리모두 앞장서자 **나 모르게 오는 피해**

정부·지자체사업 수입 성과거양

고성군침체망인양에 이어 임원·다대다포항 침적폐기물수거사업 추진

한국어항협회는 올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활발히 추진,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한국어항협회는 지난 7월 28일 정부로부터 국동항과 통영항의 수중침적폐기물 정화사업을 수입, 13억8천만원의 예산으로 각각 1,432톤, 1,780톤을 수거 처리, 11월 23일 완료했다. 이어 삼척 임원항과 거제 다대다포항의 수중침적폐기물 정화사업을 수입, 11월30일부터 오는 12월30일까지 2억5,4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협회는 지난 7월 강원도 고성군침체망인양 1999년도 이월사업을 수입, 9,970만원의 예산으로 고성군 앞바다 1천여 헥타에서 침체어망 683톤과 속초시침체망인양사업을 5,983만원의 예산으로 45톤을 인양했다.

이어 최근에는 고성군침체망인양 2000년도 사업을 수입, 4억1,628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11월27일부터 90일

간 970톤의 침체어망을 인양할 계획이다. 협회는 또 최근 정부 연구

용역사업인 전국어항개발 투자효과분석 및 개발방안용역을 수입, 4억7,500만원의 예

산으로 사업을 추진 내년 11월에 성과물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국어항협회는 올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활발히 추진,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어항청소선 오폐물 103만1,975kg 수거 바다환경보호 캠페인 지속 추진

한국어항협회가 관리 운영하는 어항청소선 7척이 올해 동안 제1·3종어항과 연안 그리고 어선이 주로 이용하는 항만과 제2종어항에 727일간 출동, 부유물 13만9,225kg, 침전물 34만8,800kg, 항행장애물 51만4,000kg 등 총 103만1,975kg의 오폐물을 수거했다.

특히 여건이 어려웠던 올해는 어항청소선 승선원 전원의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연 700일 출동계획에 727일을 출동,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7%의 수거실적을 거양했다.

한국어항협회는 어항청소

선의 청소활동에 비해 아직 어업인들의 어항환경정화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 바다환경보호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현지 어항청소선 승선원과 협회 홍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어항환경정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올 한 어항청소선별 청소 실적은 다음과 같다.

- △어항901호(군산 소재) : 7만8,650kg
- △어항902호(목포 소재) : 3만7,825kg
- △어항903호(고흥 소재) : 11만1,600kg
- △어항904호(여수 소재) : 7만850kg
- △어항905호(통영 소재) : 6만1,400kg
- △어항906호(포항 소재) : 26만9,900kg
- △어항907호(주문진 소재) : 37만1,800kg

등이다.

민자 투자규모 조정

해양수산부는 항만시설에 대한 민간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별 투자규모를 5천억원 이하로 조정하고 안벽축조, 호안 등 정부투자사업을 민간에 위탁해 사업성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또 자유무역지대 제도 활성화를 통해 배후부지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항만 배후

부지조성에 대한 재정특별금융 및 세제혜택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항만부담 민자유치 활성화대책에 따르면 재원조달의 어려움으로 사업시행이 부진한 항만사업의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사전 타당성분석을 통한 수익성보장책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별 투자규모를 조정해 민간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추진대책에 따르면 항만시설의 경우 투자규모에 비해 사업위험성이 큰 점을 감안, 사업별 투자규모를 5천억원 이하로 조정해 적정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하기로 했으며 안벽축조, 호안, 가호안 등 정부투자사업을 민간에 위탁·시행토록 함으로써 사업성 보장효과를 제고하기로 했다.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 착공 국제수산물류단지 조성

부산 감천항에 대규모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이 들어선다. 이에따라 앞으로 이 일대가 국제수산물 물류중심지로 새롭게 부상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부산시는 지난 13일 감천항 준설투기장 및 앞쪽 공유수면부지 12만 평방미터에 연건평 11만 평방미터 규모의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기공식을 이한동 국무총리를 비롯 노무현 해양수산부장관 등 많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국비 70%와 지방비 30% 등 모두 1,848억원이 투입되는 2004년 5월 완공예정인 이 도매시장은 지하1층 지상 12층으로 도매시장과 냉동·냉장보관시설, 활어양육장 등이 들어서게 된다.

이로써 연간 70만톤의 원양어획물과 수입수산물 위관, 전국 유통물량의 70%를 처리하게 된다.

부산시는 지난해 11월 준공한 감천항 동쪽 원양어업 전용부지와 수산물유통단지를 이 공영수산물도매시장과 연계함으로써 국제수산물류단지화를 조성키로 했다.

이 도매시장은 원양어획물과 수입수산물을 취급하게 돼있어 우리나라 최대 연근해 수산물위관시장인 부산공동어시장과는 경쟁관계는 아니지만 향후 이러한 규제가 풀릴 경우 수산물위관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기공식에서 이한동 총리는 치사를 통해 "한·중·일 어협 등 어업질서의 재편 등으로 우리 수산업이 거센 시련을 겪고 있다"면서 "공영도매시장 기공을 계기로 부산 수산업을 크게 발전시켜 부산경제가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항만·어항시설 내진보강 추진

해양수산부는 항만·어항시설의 지진방재를 위해 내진설계가 안된 기존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사업을 오는 2002년부터 본격 추진키로 했다.

최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의 지진방재종합대책에 의해 신규로 시행하는 항만·어항시설은 금년부터 내진설계를 적용하고 있으나 기존 시설물의 경우 내진대책이 전무한 실정임을 감안, 항별 점안시설 등 주요 시설물을 중심으로 별도의 내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컨테이너부두, 갑문시설, 여객부두 등 지진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키로 했으며 항별 세부적인 내진보강대책을 수립, 오는 2002년부터 본격적인 시설보강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컨테이너부두와 기름·가스 등 위험물 처리시설의

경우 대부분 비관리형 항만공사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 국가극속시설과 민간 운영시설로 보강대책을 구분해 마련키로 했으며 무상전용 사용중인 시설은 총사업비를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운영자가 보강을 추진하도록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무역항 연안항 어항 순으로 내진보강 우선순위를 정해 내년부터 인천항 갑문시설을 비롯, 부산·인천·광양항 컨테이너부두 및 국제·연안 여객부두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키로 했으며 연안항과 어항은 항별 주요 점안시설을 선정, 내진성능평가를 추진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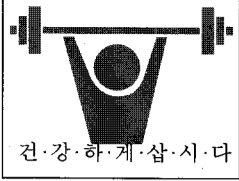
아울러 1만톤급 이상의 대형선 부두 위주로 내진성능을 검토하되 호안, 갑문,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시설물도 내진평가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내진보강이 사실상 곤란한 방파제는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밝은 내일을 약속하는 - 수협공제

어려울 때, 가장 큰 빛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보험, 든든한 보험 - 수협공제

수협의 안전지대로 돌아오십시오. 가장 든든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불면증으로 수면 부족한 사람의 점심시간 지내는 방법

밤에 잠이 안 올 때는 양의 수를 세면 좋다는가 어려운 책을 읽으면 좋다는가 하는 말이 있다. 과연 효과는 어느 만큼 있을까?

효과가 있나 없나는 별도로 하더라도 그런 종류의 말이 옛부터 있었다는 것을 보면 잠이 안 들어서 괴로웠던 사람이 많았던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성격적으로 신경질적이고 사물에 대한 것을 곱씹히 생각하는 타입의 사람이 불면증이었고, 낙천적이며 그다지 사물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은 잠을 잘 잔다.

직업적으로는 걸거나 몸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잘 자며 하루 종일 책상에서 머리만 쓰는 사람은 불면증에 시달리는 경향이 있다.

즉, 편안하게 잠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인 편안함이 필요한 것이다. 지적 사업이 많은 사람은 아무래도 운동 부족이 되기 쉽고 신경이 긴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면증에 걸리곤 한다.

내일이 소풍가는 날이라든가 데이트가 있다든가 하는 날 밤은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던 것을 경험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것은 신경이 흥분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빨리자야 할 텐데 하고 의식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눈이 말뚱말뚱해지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우선 긴장한 신경을 풀 것. 그러려면 자기 전에 적당한 양의 알코올을 마시는 것도 좋으며 미지근한 목욕탕에 들어가 있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 조깅은 아니라도 달리기 같은 것으로 땀을 흘려 본다거나 골프채를 휘둘러서 몸을 움직여주는 것도 효과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졸리는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졸리는 것은 일정한 리듬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한 번 놓치면 또 다음 기회가 올 때까지 잠이 오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하루 여덟시간의 수면이 좋다고 하는데 수면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숙면하면 짧은 시간이라도 좋지만 깊게 자지 못하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게 된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의 대부분이 얇은 잠을 자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볼 때는 오랜 시간 잠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수면 부족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역시 부족한 것만큼을 어딘가에서 보충해 주지 않으면 안된다. 근무시간 중에 앉아서 졸 수는 없으니까, 점심식사 후 20분이나 30분 동안을 자도록 한다. 이것만으로도 수면 부족은 해결되지만, 너무 많이 자면 역효과가 되므로 가면(假眠)은 30분 정도가 적당하다.

어·항·교·실 漁港工事施工管理의 첫걸음

(50)

第4章 地盤改良工

표 4.3.1 샌드드레인공법과 샌드컴팩션파일공법의 비교

항 목	샌드드레인공법	샌드컴팩션파일공법
시공직후의 지반 개량강도	샌드컴팩션파일보다 시공직후의 개량강도는 기대할 수 없다.	개량율이 동일하면 샌드드레인보다 개량강도를 기대할 수 있다.
압밀에 소요되는 시간	재하성토가 일정하면 샌드컴팩션 파일보다 늦다.	재하성토가 일정하면 샌드드레인공법보다 빠르다.
해수오염의 발생	케이싱타임, 인발하므로 오염의 발생원이 된다.	좌 동
진동, 소음	바이브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음, 진동이 발생한다.	좌 동
개량모래의 사용량	같은 치환률이면 샌드컴팩션파일 보다 모래의 사용량은 적다.	다짐하면서 케이싱을 타발하기 때문에 모래의 사용량이 많다.
숫아오름	숫아오름이 거의 없다.	강제치환을 하기 때문에 숫아오름은 크다.
부설사	배수로로서 필요	배수로로서 시공하는 경우가 있다.
재하성토	필요	불요
최대타설깊이	수면하 25m~45m	수면하 25m~55m
비 용	○	△

표 4.3.2 육상시공기계의 표준적인 구성

기	종
크롤러식 샌드 파일 타설기	
발 동 발 전 기	
컴 프 레 서	
트 랙 터 셔 블	
시 공 관 리 계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공사발주 전에 발주자 측에서 조사를 완료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장애물 탐사에 대하여는 제2장 준설공과 동일하다 (2.1.3사전조사, (5)장애물 탐사 참조).

기준점 측량은 모래말뚝(사향) 조성 시에 함심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측점을 설정하는 작업이다. 통상 기준점은 시공에 최적한 지점을 육상에 선정하여 설정하거나 육상점만으로는 불충분한 경우는 해상에 측량대를 설치하고 그위에 측점을 설정한다.

구역설정은 2.2 펌프준설과 같다. 사전조사에는 심천측량과 사재의 선정이 있다. 심천측량은 음향측심기, 레드, 스태프(staff:표척) 등으로 한다. 사재의 선정에 있어서는 실물 시료를 직접 눈으로 보는 확인과 입도시험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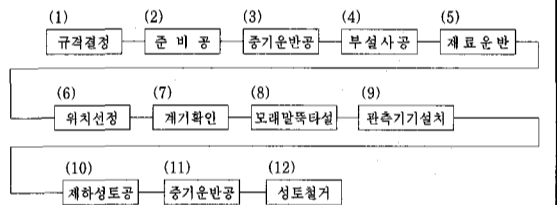


그림 4.3.3 샌드드레인공법의 표준적인 시공순서

(4) 시공기계의 원리(기구) 시공기계의 장치는 해상, 육상 모두 호퍼와 케이싱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가이드에 따라서 아래위로 왔다갔다하는 기구이다. 케이싱 선단은 케이싱내에 현지반의 토사가 진입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고, 압축공기를 송기하여 모래의 배출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기타 관입보조용의 송기장치, 제트수의 분사장치, 모래공급장치(작업선에서는 벨트컨베이어, 육상에서는 트랙터 셔블 등)를 갖추고 있다.

4.3.3 시공방법

(1) 규격의 결정 샌드드레인 말뚝을 타설할 경우는 크롤러(crawler)식 샌드드레인 타설기에 의존한다. 육상 시공기계의 규격은 개량깊이, 토질 등의 현장조건을 고려하고, 경제적·능률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선택한다.

육상시공기계의 표준적인 구성을 표 4.3.2에 제시한다.

(2) 준비공 준비공에는 기준점 측량, 구역설정과 사전조사 등이 있다. 「장애물 탐사」, 「저질

4.3.2 표준적인 시공순서

샌드드레인공법의 표준적인 시공순서는 그림 4.3.3에 나타난 바와 같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한도액이 연 18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무료·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아동·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과 복지재단, 노인복지시설협회 등에 낸 기부금은 전액 소득공제된다.

연말정산 각종 공제내용 주택자금 소득공제 300만원까지

국세청은 2000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해 기부금공제가 확대되고 주택자금 소득공제가 확대되는 등 이같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주택자금 소득공제와 관련해 한도액을 연18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공제대상이 되는 주택마련저축의 범위는 2000.11.1 이후

주택청약부금가입분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신설과 관련해 주택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주택자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저당차입금의 2000.11.1 이후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키로 했다. 국세청은 주택마련저축차입금 상환공제의 경우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존속하되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공제는 폐지키로 했다.

생활정보

공 제 범 위	기 본 요 건	공제범위	필요서류(발급처)	유의 사항
보험료공제	① 보장성 보험일것(생명, 상해, 자동차, 가계손해, 농축수협생명공제보험등) ② 피보험자가 본인,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일 것. ③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이 계약한 것(본인이 납입한 것)	· 건강보험, 고용보험 본인부담 전액 기타보험(연70만원 한도)	· 보험료납입증명서(보험회사) 또는 납입영수증사본(본인 보관용)	· 저축성보험은 공제 대상 제외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것은 해당)
의료비공제	① 연간 의료비 총지출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할 것. (틀니, 한약, 치과보철료, 근시교정수술비, 스키 일링 비용과, 치열교정비(제작가능장에진단서 첨부) 해당됨)	· 연간 200만원 한도	· 의료비지급명세서(의료기관) · 약품, 한약구입 영수증(영수증에 환자명, 질병명, 약품명과 의사나 약사 서명 기재)	· 건강진단, 미용, 성형수술, 건강증진약품 등은 제외. · 보충수업비, 교육자재, 책값제외
교육비공제	① 본인 학자금(대학원 제외) ② 자녀, 형제자매의 학자금(유치원, 초, 중, 고) 등 입학금, 수업료, 기타납입금 ③ 놀이방, 어린이방 보육비(유치원, 초등학교 입학전) ④ 취학전 자녀(만6세이하)의 음악, 미술학원비(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은 제외) ※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은 공제액에서 제외	· 초, 중, 고-연150만원(1인당) · 유치원, 놀이방 등-연100만원(1인당) · 대학생-연300만원(1인당)	· 교육비 납입증명서(교육기관) 또는 납입영수증사본(본인보관) · 학원비는 학원교육비 납입증명서	·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학원의설립및 이용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학원만 해당
연금저축공제	①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경우 -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10년 이상 불입하여야 하는 상품 - 계약기간 만료일후 만55세이후 3년이상 연금형태로 받는 저축상품 ※ 은행, 투신사, 보험회사, 체신보험, 농수축협 생명공제 등	· 당해연도 저축불입액×40/100(연72만원한도)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은행, 보험회사 등)	· 중도 해지시 저축 가입일까지 불입액×4/100(연72,000원 소급 추징함)
주택자금 소득공제	①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것. ② 당해 주택무소유자이거나 전용면적85㎡이하의 1주택 소유자(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또는 차입금(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동저축관련 차입한 것)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한 자. ③ 청약저축(10만원미만),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청약부금은10.31까지 불입액과, 주택취득차입금은 10.31까지 차입금만 인정) ④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해당	① 저축불입액 40% ② 취득차입금원리금상환액 40% ③ 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40% ①+②+③=연3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금융기관) · 직전및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시, 군, 구청)	· 차입금상환액 공제는 96.1.1 이후 개설 불입금액 또는 주택취득, 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부터 적용 · 주택임차차입금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가 저축과 연계 차입한 것만 해당

공 제 범 위	기 본 요 건	공제범위	필요서류(발급처)	유의 사항
기부금 특별공제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의기부금, 국방헌금및기부금, 이재민수호기부금(수해연금), 사회복지시설,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금품, 또는 사립학교 기능대학, 국립대병원, 사설, 교육비, 연구비 기부금 ② 기타 학교 및 학술연구 장학단체, 종교단체, 재향군인회, 대한적십자사등의 기부금	· ①은 전액 공제 (근로소득금액, 전액공제기부금) 10%이내금액	· 기부금(성금) 영수증(기부금 접수단체), 납입영수증 사본(본인보관)	· 종교단체 기부금중 사설비인 경우는 제외됨. (기부자의 성명, 목적, 일자, 금액이 기재된 것)
신용카드 소득공제	① 본인과 직계존비속(기본공제대상자중 형제자매는 제외)이 사용한 신용카드금액(99.12월~2000.11월 사용분) ②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할 것 ※직불카드도 해당됨	· 연간총급여액의 10%(300만원 한도)	· 신용카드사용 금액 확인서(신용카드업자)	· 현금서비스, 사업과 관련된 비용, 교육비, 세금, 각종공과금, 보험료등으로 사용금액은 제외
주택자금 이자세액 공 제	①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 일 것. ② 95.11.1~97.12.31까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것(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도 포함) ③ 당해 주택취득과 직접 관련 95.11.1이후 차입한 차입금이자 상환액일 것	· 이자상환액 30% 공제세액 20%는 농특세로 납부	· 주택소재관할 시, 군, 구미분양 주택확인서(시, 군, 구청) ·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금융기관) ·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 서울시의 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일 것(85㎡이하) · 건교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관할시, 군, 구청장의 95.10.31현재 미분양 주택을 확인한 주택
기본공제	① 모든 근로자 ② 배우자 ③ 부양가족 · 근로자(배우자)의 직계존속 · 남:60세이상(1940.12.31이전 출생) · 여:55세이상(1945.12.31이전 출생) · 근로자(배우자)의 직계비속과 입양자로 20세 이하인 자 · 근로자(배우자)의 형제자매 20세이하 60세이상(여:55세) ※ 단 연소득 100만원 이하일 것	· 가족1인당 연 100만원 공제	· 주민등록등본(동거서) · 호적등본(별거서)(시, 군, 구청)	· 장애자는 연령제한 없음. · 직계 존비속(부도, 자녀)이 별거하고 있는 경우라도 본인이 실질부양하면 해당.
추가공제	① 기본공제대상이 65세이상(1935.12.31이전 출생) ② 기본공제대상이 장애인인 경우 ③ 근로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 1인당 연50만원	· 장애인수첩 사본 · 주민등록등본 · 호적등본	· 6세이하의 직계비속을 둔 여성근로자 또는 독신남 성근로자(자녀양육비 공제)
표준공제	① 모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공제 신청이 없는 경우 근로자 본인	· 연60만원 공제		· 지출증빙없이 공제
근로소득 공 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	· 900만원+1,500만원 초과금액의 10%(1,200만원 한도)		· 지출증빙없이 공제

생활정보